

「한국관광학회 고문 회고록」:  
학회 發展을 위한 提言

金 相 武  
제 16대 회장  
Kim, Sang-Mu

## I. 발전적 학회운영 구상

사단법인 한국관광학회가 1972년 설립된 이래 3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람에 비하면 장년으로 기운이 썩썩하여 한창 활동이 활발한 시기에 들어섰다고 하겠습니까. 현재 우리는 1,000여명이 넘는 회원 확보와 통권 73호가 넘는 학술지(관광학연구)를 발간해냄으로써 양적으로나 질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학회로 인정받고 있을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그 위상을 자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괄목할만한 발전과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선배·동료 및 후배 회원들의 피나는 노력과 헌신적인 봉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되어져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하고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에 만족하고 이 자리에 안주할 수는 없습니다. 급변하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학회의 위상을 더 높이기 위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역대회장 및 임원진들의 노력으로 학회가 발전할 수 있었는데,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에 사단법인으로 정식 등록함으로써 공인된 학술단체로서의 활동이 가능했다는 점과 회장직의 간선제 도입, 논문의 3인 익명심사제, 국제학술대회 개최, 학술지(관광학연구)의 색인 등재 학술지 인정, 영문학회지 발간, 분과학회 설립 등은 괄목할 만한 업적으로 평가되어질 수 있습니다.

학회발전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학회운영과 심도있는 국제학술 심포지움 개최 그리고 질 높은 학술지가 발간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발전적 학회운영을 위한 목표와 학술지 질적 제고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발전적 학회운동을 위한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産·官·學·研간의 協力強化입니다. 전공 특성상 우리는 관광사업체 및 정부공공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야만 한다고 믿습니다. 더구나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식되고 있는 지식기반 사회에서 변화에 대처하고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론과 실무의 접목과 조화를 실현시킴으로써 혁신적 발전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관과 학을 연계하는 것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각 시와 도의 개발연구원이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학회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및 단체장과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수상하고 있는 관광진흥대상 및 관광경영대상은 객관성과 이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우수 언론기관과 공동으로 수상대상을 선정하여 수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됩니다. 그리고 학회가 주도적으로 전 국민과 외래방한관광객을 대상으로 “건전관광캠페인”을 펼쳐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세계적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무공해 녹색관광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각종 캠페인을 학회가 선도적으로 지도하고 실천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둘째는 학회의 國際的 位相提高입니다. 우리는 이미 대규모 국제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바 있고, 아울러 국제학술지로의 인정을 받기 위해 영문학회지를 2002년부터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규모의 학술단체와 교류 및 협력사업 등을 통해 학회를 세계에 널리 알림으로서 국제적 경쟁력 강화는 물론, 우리 학회의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국제관광학술원(IAST: International Academy for the Study of Tourism)과 같은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국제학술단체와의 공동 학술대회 개최함으로써 위상제고는 물론 실질적인 학회 발전을 기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또한 국제학술 심포지움에 초청되는 외국 학자들에 대한 관심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학회 위상에 걸 맞는 수준의 외국학자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충분한 시간(적어도 1년 정도의 여유시간)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제적 수준의 학자를 일회성 초빙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편집위원 또는 고문으로 임명하여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셋째는 學會發展基金 造成事業 推進입니다. 우리학회는 규모나 내용면에서 이미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수준의 학술단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기학술대회 및 학회지 발간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외 다른 중요한 사업들도 펼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연구 및 장학사업이나 우리의 숙원인 학회회관 건립사업 등

은 당장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비록 어려운 여건 가운데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학회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노력과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금조성을 위해서는 기부금 또는 기증품을 제공 받는 통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재무적 기여를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밖에 후원기업 또는 공공기관을 모색하여 학회가 그들의 재무적인 후원에 대한 보상으로 그들이 필요로 하는 무언가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무엇보다 학회의 다양한 활동 중에 핵심은 學會誌 發刊에 있다고 봅니다. 사실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주요 목표도 더 우수한 학술지 발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학회 학술지 『관광학연구』는 1977년 창간호 발간을 시작으로 1993년까지 년 1회로 발간하다가 1994년부터는 년 2회, 제22권부터는 년 3회, 제25권부터는 년 4회, 현재는 년 6회로 증간되고 있어 양적으로 크게 발전하였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학회지 발간의 목적은 학문의 최근 동향, 새로운 기법을 소개, 정책방향 제시 등 관광학의 전문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학회지는 비단 본 학회 회원들만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학회지의 수요는 관광관련관광관련학생들, 관광 기업인, 관공서 직원들로 부터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광은 실용회지는문이기애 그 어떤지는문보다도 다학제적(multi-disciplinary) 접근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다학제적 접근을 시도해 왔는지 되짚어 봐야 할 것입니다. 논문이 논문적 또는 실용회지기여도가 없으면 그것은 무의미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회지는 실용회지로 응용할 수 있는 무언가를 제안나 후보다는 학문회지기여도가 지배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실용회인 것이 더 앞서야 한다고 하겠습니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둘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까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에 본 학회지의 균형회인 발전을 위해 저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주관적인 견해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문제점은, 첫째 정량적 논문과 정성적 논문의 부적정한 비율, 둘째 종적(longitudinal) 연구의 미흡, 셋째 내재적 의미 도출의 미흡, 넷째 학회지 마케팅의 부재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 II. 학회지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제언

### 1. 정량적 논문과 정성적 논문의 부 적정 비율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회지 논문이 과도하게 정량적 기법 그것도 매우 복잡한 기법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학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량적 논문은 사실 정성적 논문보다 수행하기 훨씬 용이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 할 수 있습니다. 설문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적절한 기법을 활용하여 결과물을 도출하고 적절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논란의 여지를 발견하기란 그리 용이하지 않습니다. 물론 결과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정밀하고 복잡한 기법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통계 결과물 그 자체 또는 기법의 개선에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더 신뢰성이 높은 결과를 바탕으로 더 명확한 정책적 또는 실용적 시사점을 제안하기 위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관광학이 경제학처럼 우울한 과학(dismal science)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지나치게 정량적인, 즉 복잡한 기법과 수식을 강조한 논문은 극소수의 학자를 제외하고는 관심 밖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2. 종적(longitudinal) 연구 미흡

질적으로 우수한 연구를 위해서는 시간의 투자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논문은 단기적 및 일시적 관찰을 근거로 하여 작성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크게 잘 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점에서 특정 부분 집단은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읽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종적 또는 종단연구는 동일한 그룹을 오랜 시간을 걸쳐 조사하고 관찰하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이에 대해 수긍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종단 연구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구자들은 대체로 쉽고 빠르게 결과물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에 강화된 대학의 교수업적평가 및 승진제도로 인하여 교수들의 논문 게재욕구는 매우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교수로 하여금 논문의 양을 우선토록 하고 질은 중시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한국의 관광학 분야에서 종적 또는 종단이라는 키워드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 3. 내재적 의미 도출의 미흡

많은 교수들이 공감하는 부분이겠지만 우수한 연구기법을 활용하여 흥미로운 통계적 분석결과를 확보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시사점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빈번하다고 봅니다. 이는 연구자가 지나치게 전문적인 정량적 연구에만 치중한 나머지 정치, 경제, 사회, 환경, 기술 등과 같은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확보하지 못한데 기인한다고 하겠습니다. 관광관련 기업인 및 관공서 관계자는 연구가 시사하는 바에 높은 관심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논문의 시사점은 피상적인 수준, 즉 연구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데 공감할 것입니다.

### 4. 학회지 마케팅의 부재

이제는 학회도 마케팅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점에서 학회지는 학회의 핵심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학회지라는 상품을 어느 표적시장에 어떤 경로와 가격으로 판매할 것인지에 대해 그다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등재지로 자리매김한 것은 축하해야 할 일이나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관련 학술지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인용지수도 증가하여야겠지만 시장을 좀 더 넓게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 Ⅲ.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언

학회발전 방안을 위해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지만 저는 앞에서 몇 가지 주요 문제점을 주관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각각의 문제점은 이미 많은 회원들이 인지하고 있는 바 일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회원들이 함께 고민하여야 할 부분이지만 저는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관광연구가 새롭게 진화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정량적인 연구기법 개발도 중요하지만 정성적인 논문도 장려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학회논문 규정을 보완하여 본 학회지 각 호에 정성적 논문을 게재하는 최소비율을 의무화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부분이 기피하는 종적연구는 학회차원에서 장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학회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면 종단연구를 위한 지정과제를 제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종단연구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우수한 연구를 학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연구논문의 업그레이드된 내재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연구역량을 강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수한 논문을 수상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을 유인책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으로 수상을 위한 논문심사에 내재적 시사점을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관광학회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학회지를 위한 마케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학회 논문을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회보(Bulletin)를 만들어 관계자에게 배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재정적으로 부담이 된다면 이메일 또는 기존의 학회 웹사이트를 통하여 배포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옥같은 연구논문을 보다 많은 사람이 공유할수록 그 가치는 더할 것이며 학회의 위상과 존재이유(raison d'etre)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위에 언급한 문제점과 해결방안들은 어디까지나 저의 주관적인 견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학회를 이끌고 가는 회장, 부회장, 편집위원장 및 그 외 임원들과 함께 우리회원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